

경제상황에 따른 청년층의 경력 유형 연구

최 지원* · 정 진 철**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위기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카드대란, 글로벌금융경제위기 등에서도 확인되어 왔다. 때문에 이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경제위기 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청년층의 경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시 청년층의 경력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해석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청년층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청년층의 10년 간 종단적 경력 유형을 규명·비교하여, 각 경력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결과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경력을 직업경력과 고용경력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체널시퀀스분석을 실시하였고, 경력 유형의 특성 구명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학력), 진입 특성(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첫 일자리 임금), 과정 특성(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 결과 특성(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을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은 코호트 내 경력 유형별 차이 검정 및 경력 유형별 코호트 간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변화 양상의 분기점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 1997년 말로 요약된다. 외환위기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외상과 내상을 야기했으며, 실제 기업의 대량 부도, 구조조정과 맞물린 개인의 실업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 부분에서의 대폭적인 변화가 실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 선진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 고용, 임금 등의 문제가 점화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이 심화되면서 항구적 실업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고용 창출 기반이 약화되어 신규 고용 창출의 많은 부분이 비정규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임금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김대일, 2007). 이처럼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혜진, 2012).

*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농산업교육과 부교수

이와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 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 변화는 어떠한가? 외환위기 이전 4%대였던 청년실업률은 1998년 12.2%로 수직상승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7%를 넘는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에 더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고용창출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부문일수록 청년층 신규 구직자 보다는 경력을 보유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김대일, 2004).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수요의 급락이 신규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동결로 연결된 반면, 경기회복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회복은 경력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안주엽, 홍서연, 2002).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대응 성향은 경제상황과 밀착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측면, 과정측면, 그리고 결과측면이 총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제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과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며 이후 경제위기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입되어야 할 중장기적 구조·미시적 방안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집단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경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경력의 진입, 과정 및 결과 측면의 양태에서 하위 집단 즉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구분은 동일한 집단 내부에서도 개인의 경력이동은 유의미한 하위집단으로 구명되며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경력이 형성되고, 경력의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 관점은 기존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모형에서 벗어나(김용성, 2012), 청년층의 경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감안해볼 때, 문혜진(2012)에 따르면 청년층의 노동경력의 진입 구조와 안정된 일자리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진입초기 실업 및 이동 경험이 갖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청년층 경력에 관한 연구는 3~6년의 단기적 분석만을 실시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층의 경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10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력 진입에서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청년층의 유형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기존 선행 연구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 및 특성을 구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을 유형화한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을 구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환위기의 의의

외환위기는 개인, 가족 및 조직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무척이나 위협적이었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으며,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계는 위기의 사건이었다(김명언, 2007).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다시 겪게 되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국내 고용 시장은 빠른 시간 내에 붕괴하였고, 1997년 11월 58.5만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명으로 외환위기 기간 중 122.7만명 증가하였다. 당시 비경제활동인구는 동기간 183.3만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54.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업률은 2.1%에서 8.8%로 6.7% 상승하였다(<표 1> 참조).

<표 1> 경기침체 시 고용 지표 추이

구 분	외환위기		신용카드		2008~2009년		전체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취업자수증감(만명)	-108.7	52.9	-2.2	12.9	3.4	9.1	36.0	44.9
실업률(%)	6.4	1.68	3.8	0.17	2.9	0.25	3.4	1.29

주) 외환위기(1997.11~1998.12), 신용카드(2003.1~2003.8) 기준

자료: 현대경제연구소. (2009).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소.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 1월 -10만 2천명을 기록함에 따라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다(현대경제연구소, 2009). 최근 고용 시장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노동 시장의 후행성으로 인하여 추가적 실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외환위기가 초래한 성장률 감소와 취업자 수 감소 충격은 외환위기 이전의 추세로 되돌아오는 일시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추세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항구적 영향을 갖는 충격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병희, 2008).

따라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위기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카드대란, 글로벌금융경제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때문에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여파를 분석하고 그에 예방적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과 대응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일반적인 해석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경제상황에 따른 청년층의 경력 취약성

청년층의 고용과 실업은 장년층에 비해 경기순환에 매우 민감하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기희, 2006; 안주엽, 홍서연, 2002; 장창원 외, 2002). 경기순환에 있어 청년층의 경력 취약성에 대한 보고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사용자인 기업이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채용을 줄이

거나 동결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경력자인 청년층들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 필연적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입장이거나, 공급 측면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취약한 청년층의 실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숙련인 및 경력직의 선호는 미숙련 신규근로자인 청년층의 입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불안이 가시화될수록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며 이에 따른 신규채용이 감소하게 된다.

3.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과 청년층의 실업률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청년층 전체의 실업률

우리나라의 1990~2012년에 걸친 청년층의 구체적인 실업률은 <표 2>와 같다. 1990년대 초반 청년층의 실업률은 5% 이하로 Ehrenberg & Smith(2002)의 기준에 따라 청년층 고용시장은 호황기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청년층의 고용시장의 호황기는 1996년까지 평균적으로 5%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실업률이 5%에 진입하였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청년층의 실업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에 들어 반등이 시작되어 7%대로 줄었으나 2000년 이후에도 평균 7.02%의 실업률이 유지되었다. 외환위기 당시 폭발적 실업률과, 외환위기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완전고용으로 회복되지 않는 현상은 Verick(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경제위기 발생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장 취약하며, 위기 발생 이후 실업률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경기 안정 이후에도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은 서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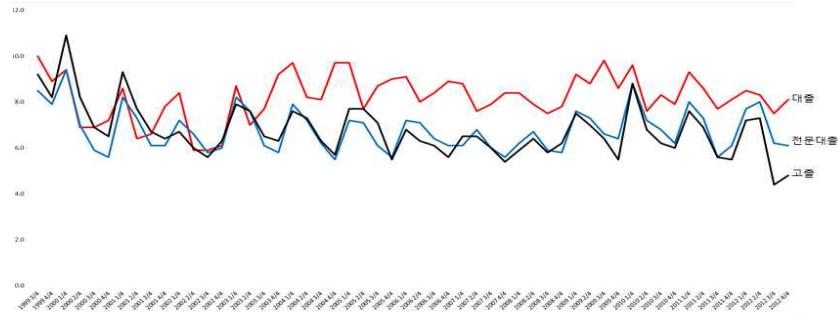
<표 2> 청년층의 실업률

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4.9	4.9	5.3	6.3	5.4	4.3	4.4	5.3	11.4	10.1	7.1	7.0	6.3	7.4	7.5	7.4	7.3	6.7	6.7	7.4	7.1	6.7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4a).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

나.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학력별 청년층의 실업률

한편, 청년층의 고용률에 있어 학력별 추이도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고졸, 전문대졸, 대졸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고용률은 추락하였다([그림 1] 참조). 특히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의 고용률은 다소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졸자의 고용률은 전문대졸, 고졸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의 경우 고졸, 전문대졸, 대졸 간의 고용률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졸, 고졸, 전문대졸 순으로 고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가 학력계층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및 고용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방하남 외(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림 1]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4b).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4.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과 청년층의 대학진학률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과 고졸자의 대학진학률

교육, 직업훈련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향후 직업생활에서 보다 나은 수익의 회수를 통해 보상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교육에 대한 투자 동인이 되기도 한다(Becker, 1993).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가치를 근로자의 교육, 경험, 나이, 성적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Psacharopoulos, 1975). 실제 1997년 말·1998년 초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 고졸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고졸자의 대학진학률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고졸자 대학진학률	33.2	33.1	34.3	38.4	45.8	51.4	54.9	60.1	64.1	66.6	68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79	72.5	71.3	70.7	70.9
대학 취학률	23.6	23.7	24.9	27.1	31.7	36	41.1	45.3	46.4	48.5	52.5	55.1	56.4	58.4	61.4	65.2	67.8	69.4	70.5	70.4	70.1	68.4	68.4	68.7	68.2

자료: e-나라지표. (2014). 취학률 및 진학률.

나. 과잉 대학진학률의 원인

첫째, 과잉 대학진학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고졸 취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졸 취업의 몰락은 경제위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30%를 유지하던 취업률이 97년에 20%대로 떨어졌으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즉, 경제위기로 인해 고졸 취업자들을 흡수 하던 노동시장이 몰락했거나, 기업들이 고졸 취업자들 선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던 고졸자들이 선택했던 진로 중 하나가 교육 투자였으며, 학벌중심사회에서의 대안들 중 가장 선택할만한 대안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과잉 대학진학률의 또 다른 원인은 대학설립 준칙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대학설

립 준칙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의 설립, 학생 정원, 입학전형 등에서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실대학을 양산하고, 급증한 대학의 수와 외환위기가 맞물리면서 다수의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80%대의 대학 진학률의 원인이 되는 제도로 분석되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 2012).

5. 외환위기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과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의 직업 및 고용 변화

가. 직업구조 내 청년층 분포의 편향성

방하남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직업군에서 중위연령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이 많이 분포된 직업인 경우 중위연령이 낮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당시 중위연령이 낮은 직업을 확인하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직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중위연령이 낮은 직업 중 1990~2010년 사이 20~30대 연령이 중위연령인 직업은 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인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기능조작/단순노무는 30대 초중반 연령의 중위연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해볼 때, 청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업은 전문가/준전문가/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작/단순노무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노동시장 진입유예

청년층 노동력의 유희화는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액수의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실업,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에서는 이를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 노동력의 유희화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개인 및 사회적 교육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된다(장창원 외,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진입유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경제위기가 도래할 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노동수요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게 여겨지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주변부의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경력을 쌓아나가며 양질을 일자리를 확보해가는 전략이며, 두 번째 전략은 미취업 상태에서 역량을 더 겸비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바로 이행하는 것이다(오호영 외, 2012). 이 두 가지 전략 중 청년층 대다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감안하여, 후자를 선택하게 되며 이는 곧 청년층의 고스펙화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유예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다. 니트족 발생

외환위기 전후인 1997~1999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 62.5%인데 비해 1999년에는 57.7%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4.8%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채용억제로 인해 취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스스로 구직의사를 철회해 아예 실업자 대상에서 제외된 실망실업자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장창원 외, 2002). 니트족은 청년인력의 유희화를 대표하는 단적인 현상이며, 니트족의 증가는 노동력의 유희화와 생산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니트족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한 고학력 청년층의 진입 장애,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구조의 취약성, 셋째, 자발적 사유로 일하는 삶을 유보하는 성향 등으로 분석된다(정연순 외, 2008).

라. 비정규직으로의 진입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과 관련된 주된 변화는 외환위기 당시 중점적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취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취업에 이상신호가 생기게 되었다(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구조 상 비정규직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연쇄적으로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고용상황을 악화시켰다. 비정규직화는 분명 자유로운 근로조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Arthur & Rousseau, 1996), 고용구조 유희화로 인한 불안정성의 타격이 더욱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김재호, 2007).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및 특성을 구명하는 데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그림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청년층의 경력을 직업 및 고용경력으로 구분하고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을 유형화 하였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경력 유형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화를 위해, 청년층의 경력을 직업 및 고용경력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채널시퀀스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경력 유형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 대해 각 경력 유형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 진입 특성, 과정 특성 및 결과 특성을 차이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에 대한 경력 유형별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력정보가 단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거나 미상인 경우, 무학자인 경우를 제외하여 4,281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4,281명 중 1998~2003년 당시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1,350명을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코호트는 1998~2000년 졸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는 2001~2003년 졸업자로 구분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코호트 728명과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 622명을 대상으로 병역 및 직업력 정보를 확인하여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병역정보가 미상인 자를 제거하고, 이때 병역 이행 및 미이행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이행 시 입대 및 제대일 정보를 확인하여 미상인 자를 제거하였다. 이후 직업력 자료를 결합하여, 첫 일자리 정보 미비, 졸업 6개월 이전 취업자(졸업 6개월 내 취업자는 연구대상 포함) 제거, 10년의 경력 정보 이력자 제거를 통해 외환위기 당시 코호트 345명과,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 214명을 추출하였다. 추출과정에서 패널자료의 특성 상 회고 자료의 처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자료는 응답자가 몇 차례의 조사를 건너뛰더라도 기억의 부정확성 문제만 발생할 뿐 자료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력 자료 결합에 있어 회고자료를 포함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코호트 345명과,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 214명에 대해 경력자와 무경력자를 구분해본 결과, 외환위기 당시 코호트의 경력자는 311명, 무경력자는 34명으로 나타났고, 외환위기 이후 코호트의 경력자는 197명, 무경력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3.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용 설문, 신규용 설문,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용 및 신규용 설문자료에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 이력과 그 기간, 군복무 여부 및 기간을 추출하여 1~15차년도 자료를 연계 하였으며, 개인용 및 신규용 설문자료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한 직업력 자료에서 일자리 이력과 기간, 각 일자의 임금, 유지 기간 등을 연계하였다.

4. 측정변인

가. 경력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 경력은 직업경력과 고용경력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업경력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직업영역의 변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업경력은 1998~2003년 당시 정규교육기관 졸업 시점을 시간축으로 고정하고, 1개월 단위의 개인의 직업경력 사항을 코딩하였다. 이에 개인이 가졌던 모든 직업의 직무내용과 시작 및 종료 기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직업력 자료에 코딩된 내용을 연구자가 재코딩하였다. 고용경력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고용과 관련한 상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고용경력은 직업경력과 동일하게 1998~2003년 당시 정규교육기관 졸업 시점을 시간축으로 고정하고, 1개월 단위의 개인의 고용상태를 코딩하였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 성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① 남자, ② 여자로 성별을 변수화 하였고,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으로 변수화 하였으며, 최종학력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으로 변수화 하였다.

다. 진입 특성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 진입 특성은 첫 일자리 취업 소요기간과 첫 일자리 임금으로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 취업 소요기간은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한 이후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 까지 걸린 시간(월)을 의미한다. 한편, 첫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직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후 120개월 경과 시점에서 우측 중도절단하여 120개월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 임금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후 받은 임금(월평균액)을 의미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4)을 실시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환산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당시의 화폐 금액을 2014년 기준 화폐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라. 과정 특성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 과정 특성은 첫 일자리 유지기간과 이직횟수로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후 해당 일자리를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력 자료에서 첫 번째 일자리 시작 년월에서 첫 번째 일자리를 그만둔 년월을 뺀 기간(개월)을 의미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은 경우 노동시장 진입 년월로부터 1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첫 일자리 취업 년월을 뺀 기간(개월)을 의미한다. 한편, 첫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직자의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직 횟수는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이후 첫 일자리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부터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직장을 옮긴 총 횟수를 의미한다. 한편, 첫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직자의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 결과 특성 측정변인

이 연구에서 결과 특성은 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으로 분석하였다. 취업여부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후 12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최종적인 취업상태의 유무를 의미하고, 근속년수는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점부터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실제 조직에 근속하여 일한 개월 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15차년도 직업력 조사에서 각 일자리의 입직시점과 이직/실직 시점을 차분하여 총 일자리에 근속한 기간(개월)을 의미한다. 임금은 2009~2012년 시점에서 청년층이 마지막 일자리에 받는 임금을 의미하고 15차년도 직업력 조사에서 현재 일자리의 임금에 대해 응답한 월평균액을 의미한다. 첫 일자리 임금과 동일하게 화폐가치 반영을 위해 임금은 해당 일자리 재직

년도의 임금 평균에 마지막 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4년 기준 화폐금액으로 환산하였다.

5. 자료분석 절차 및 방법

이 연구는 첫째, 청년층의 경력을 직업 및 고용경력으로 구분하여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과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을 유형화하였으며, 둘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청년층의 경력 유형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차이를 구명하는 절차를 거쳤다(<표 4> 참조).

<표 4> 자료분석 절차 및 방법

연구목적	분석절차		분석방법
I. 경력 유형화 단계	직업 및 고용경력 코딩	직업경력/고용경력 하위 범주 설정 (직업경력: 직업영역 / 고용경력: 고용상태, 특수고용상태, 미고용상태)	다채널 시퀀스분석
		시계열에 따른 배열 코딩	
	직업 및 고용경력 배열별 유사성 분석	비용행렬(cost matrix) 설정	
		배열쌍별 비교를 통한 거리값 도출	
직업 및 고용경력 유형화	배열 간 거리 값 기반 직업 및 고용경력의 유형화	군집분석	
II. 경력 유형의 특성 구명 단계	경력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명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성별,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학력 구명	χ^2 검정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차이 구명	t검정
	경력 유형의 진입 특성 구명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첫일자리 임금 구명	ANOVA
		진입 특성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차이 구명	t검정
	경력 유형의 과정 특성 구명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첫 일자리 유지기간, 이직 횟수 구명	ANOVA
		과정 특성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차이 구명	t검정
	경력 유형의 결과 특성 구명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 구명	χ^2 검정 ANOVA
		결과 특성에 대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차이 구명	t검정

특히 경력 유형화를 위한 코딩에 있어 직업 및 고용경력과 관련된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시계열에 따라 배열화하여 코딩하였다. 직업경력 코딩은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코딩 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 개정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6차 개정과 5차 개정에서의 주된 차이는 대분류 수준에서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포함여부로 나타나며, 5차의 개정 내용에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포함되어 보다 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5차와 6차 개정의 두드러진 차이가 중분류 및 소분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에 보다 적합한 분류는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5차 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층의 경력 유형화를 위해 직업경력 코딩은 한국표준산업분류(5차)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코딩하고 직업경력의 하위범주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한 시점을 시간 축으로 고정하고, 각 개인이 해당 시점에서 어떠한 직업경력을 가졌는가를 1개월 단위로 코딩하여 개인 당 총 120개월의 경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고용경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개인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고용상태와 미고용상태로 구분된다. 고용상태는 고용된 조직의 규모에 따라(300인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고, 고용계약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용상태는, 조직의 규모와 고용계약의 조합을 활용하여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특수고용상태로는 SE: 고용주/자영업자, FB: 가족사업종사자로 구분하였고, 미고용상태는 고용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UE: 실업 및 구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상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WL: 일/학습 상태를 추가적인 고용상태로 설정하였다. 시간 축은 직업경력코딩과 동일하게 1998~2003년 사이 정규교육기관 졸업 시점을 시간 축으로 고정하고 1개월 단위로 각 개인이 해당 시점에서 어떠한 고용경력을 주로 하였는가를 코딩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직업 및 고용경력의 코딩 근거는 <표 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5> 직업 및 고용경력의 코딩 근거

직업경력 코딩		고용경력 코딩	
코드	구분	코드	구분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CF	대기업-정규직
1	전문가	CT	대기업-비정규직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MF	중소기업-정규직
3	사무 종사자	MT	중소기업-비정규직
4	서비스 종사자	SE	고용주/자영업자
5	판매 종사자	FB	가족사업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WL	일/학습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FE	후진학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MS	병역이행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A	군인	NA	미상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IV. 연구결과

1.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가.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6>과 같다. 성별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은 남성이 많았으나 여성의 비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은 고졸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은 대졸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

구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1	58.26	151	70.56	
	여성	144	41.74	63	29.44	
연령	1969~1972년생	29	8.41	1	0.47	
	1973~1976년생	79	22.90	35	16.34	
	1977~1980년생	167	48.41	66	30.85	
	1981~1984년생	70	20.29	112	52.34	
병역	군	최초 노동시장 진입 전	71	20.58	65	25.23
	필		43	12.47	24	11.21
	미필	231	66.96	125	58.41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	고졸이하		188	54.50	73	34.10
	전문대졸		63	18.30	61	28.50
	대졸이상		94	27.20	80	37.40
최종학력	고졸이하		117	33.90	62	29.00
	전문대졸		93	27.00	67	31.30
	대졸이상		135	39.10	85	39.70
경력 상태	경력자		250	72.47	189	88.32
	후진학자(경력자)		61	17.68	8	3.74
	후진학자(무경력자)		10	2.90	3	1.40
	니트족(neet)		24	6.96	14	6.54
총계		345	100.00	0	100.00	

주1)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상세): 외환위기 당시 중졸(2명), 석사졸(5명), 박사졸(1명)
외환위기 이후 중졸(0명), 석사졸(7명), 박사졸(1명).

주2) 최종학력(상세): 외환위기 당시 중졸(2명), 석사졸(5명), 박사졸(2명)
외환위기 이후 중졸(0명), 석사졸(7명), 박사졸(1명).

나. 청년층의 경력 유형 결정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수 결정은 <표 7>, <표 8>과 같이 군집 내 최소 케이스 수 유지, $sindex$ 의 값 유지, $g2$ 와 $g3$ 의 반비례 관계, 엔트로피 증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6개의 유형이 청년층의 경력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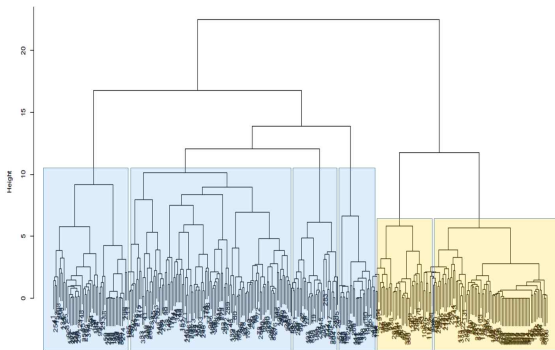
<표 7>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결정 지수

구분	2	3	4	5	6	7	8	9	10
군집 내 최소 케이스 수	123	52	23	23	23	23	20	20	14
average.between	2.992	3.025	3.039	3.031	2.977	2.983	2.975	2.968	2.969
average.within	2.630	2.440	2.313	2.165	2.147	1.944	1.913	1.703	1.627
sindex	0.953	0.876	0.876	0.857	0.774	0.774	0.758	0.756	0.756
$g2$	0.223	0.378	0.475	0.561	0.500	0.630	0.636	0.746	0.792
$g3$	0.357	0.292	0.250	0.213	0.243	0.187	0.184	0.138	0.119
entropy	0.651	1.002	1.197	1.424	1.639	1.817	1.917	2.094	2.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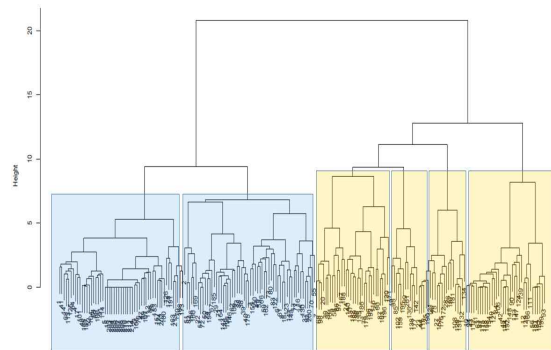
<표 8>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결정 지수

구분	2	3	4	5	6	7	8	9	10
군집 내 최소 케이스 수	101	35	21	21	12	12	10	10	6
average.between	3.196	3.166	3.165	2.998	3.002	3.003	2.995	2.971	2.969
average.within	2.358	2.189	2.078	1.979	1.873	1.803	1.762	1.589	1.540
sindex	1.098	1.098	1.089	0.818	0.818	0.818	0.818	0.817	0.817
$g2$	0.554	0.641	0.714	0.609	0.678	0.721	0.733	0.793	0.817
$g3$	0.205	0.166	0.134	0.192	0.162	0.144	0.139	0.116	0.106
entropy	0.692	0.996	1.189	1.555	1.677	1.780	1.878	2.066	2.135

한편 청년층의 경력이 어떠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덴드로그램을 도출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은 [그림 3]과 같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은 [그림 4]와 같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그림 4]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다. 청년층의 경력 유형: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비교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을 유형화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은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으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표 9> 참조).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 대한 χ^2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종합 (n(%))

구분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 (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계	χ^2
외환위기 당시	52 (15.07%)	36 (10.43%)	87 (25.21%)	114 (33.04%)	33 (9.56%)	23 (6.66%)	345 (100.0%)	41.802*
외환위기 이후	35 (16.35%)	58 (27.10%)	55 (25.70%)	33 (15.42%)	12 (5.60%)	21 (9.81%)	214 (100.0%)	

*p<.05.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첫째, 유형별 비율적 측면에서, 둘째, 세부 직업 및 고용 양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 경력의 유형별 비율적 측면에서, 외환위기 당시 경력 유형은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경력 유형은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를 비율로 비교하면, 외환위기 당시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이 외환위기 이후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의 비율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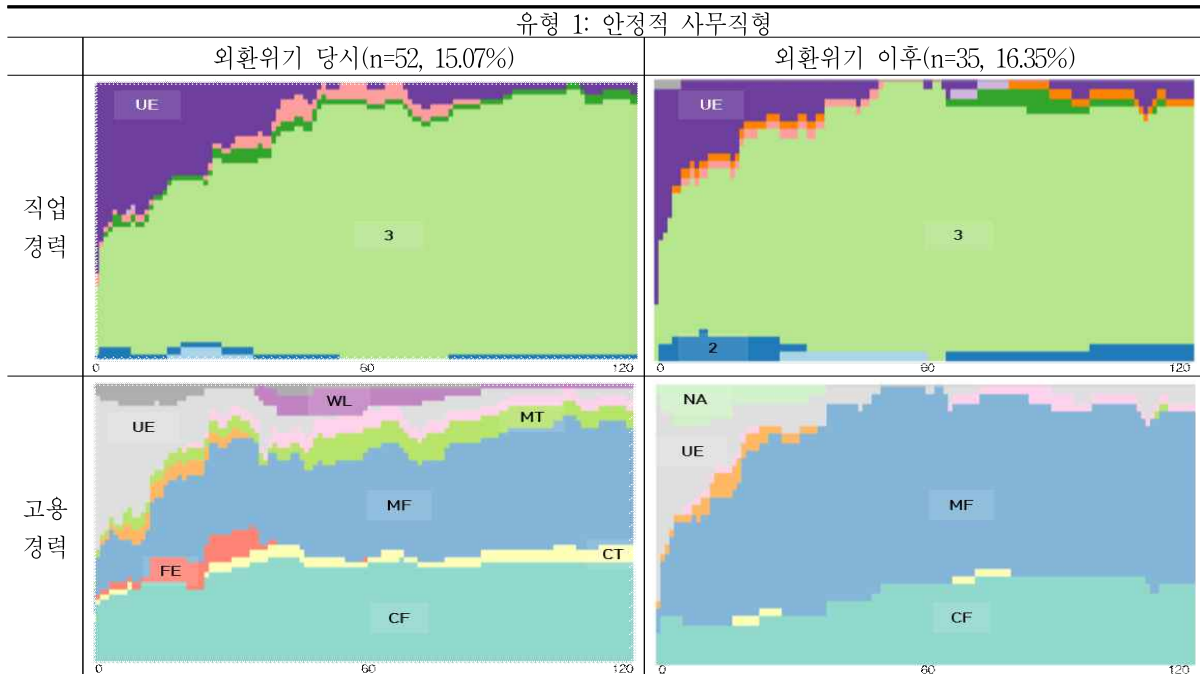
둘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 경력의 세부 직업 및 고용의 양상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은 시간의 경과와 해당 청년층의 직업 및 고용 경력 상태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타임프로파일의 비교를 통해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1)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은 직업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이 3: 사무 종사자로 입직하여 타 직업으로의 이동 없이 3: 사무 종사자의 경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일부 외환위기 당시 타 직종(5: 판매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출현하나 그 비율이 낮고 일시적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타 직종이 출현하나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직종은 아니다.

고용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고용경력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UE: 실업 및 구직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SE: 자영업 등 다양한 경력 상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CF: 대기업-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이 주된 경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후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MT: 중소기업-비정규직은 나타나지 않으며, CT: 대기업-비정규직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외환위기 당시에 경력 초기 FE: 후진학자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E: 후진학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후 뒤이어 WL: 일/학습이 나타났다. 이는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에서는 FE: 후진학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3: 사무 종사자로 일하면서 추가적인 학습을 병행하는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학습과 관련한 고용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1(안정적 사무직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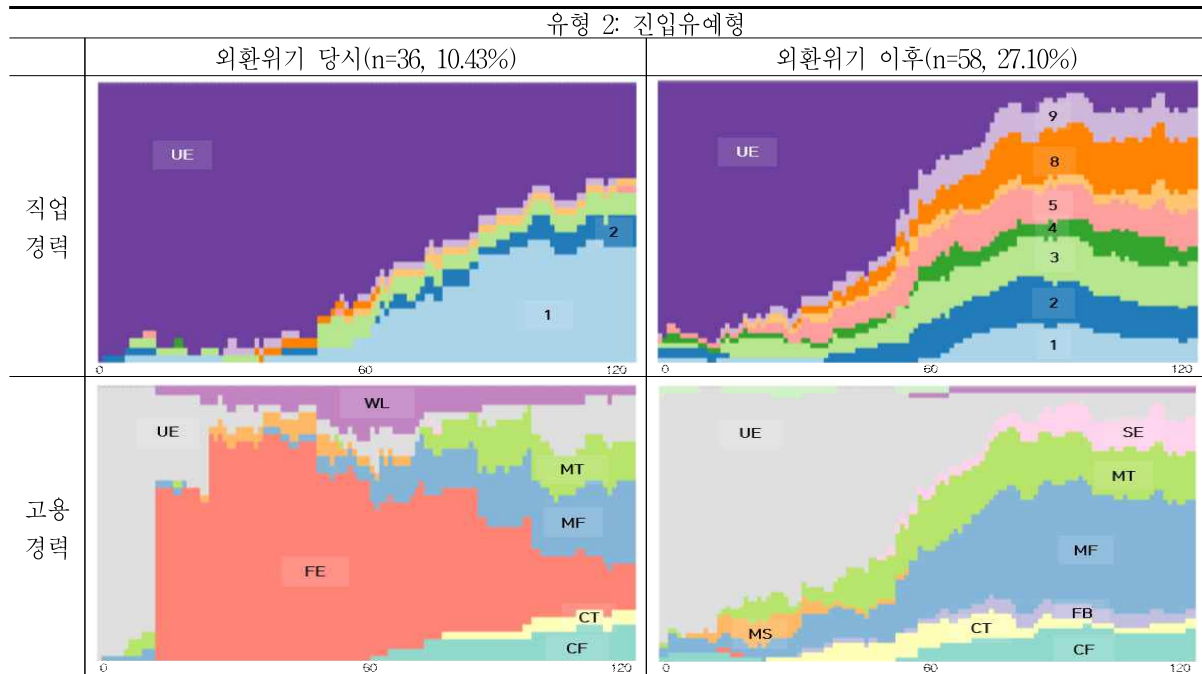
-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2)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2: 진입유예형은 직업경력 차원에 있어 첫째, 외환위기 당시의 UE: 실업 및 구직 비율이 외환위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UE: 실업 및 구직 비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UE: 실업 및 구직 비율은 상당부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직업은 1: 전문직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1: 전문직,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자 등 다양한 직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은 매우 이질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FE: 후진학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경력 전반에 걸쳐 FE: 후진학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FE: 후진학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FE: 후진학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당시에는 FE: 후진학자 이외에도 WL: 일/학습이 뚜렷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E: 후진학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WL: 일/학습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WL: 일/학습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표 11>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2(진입유예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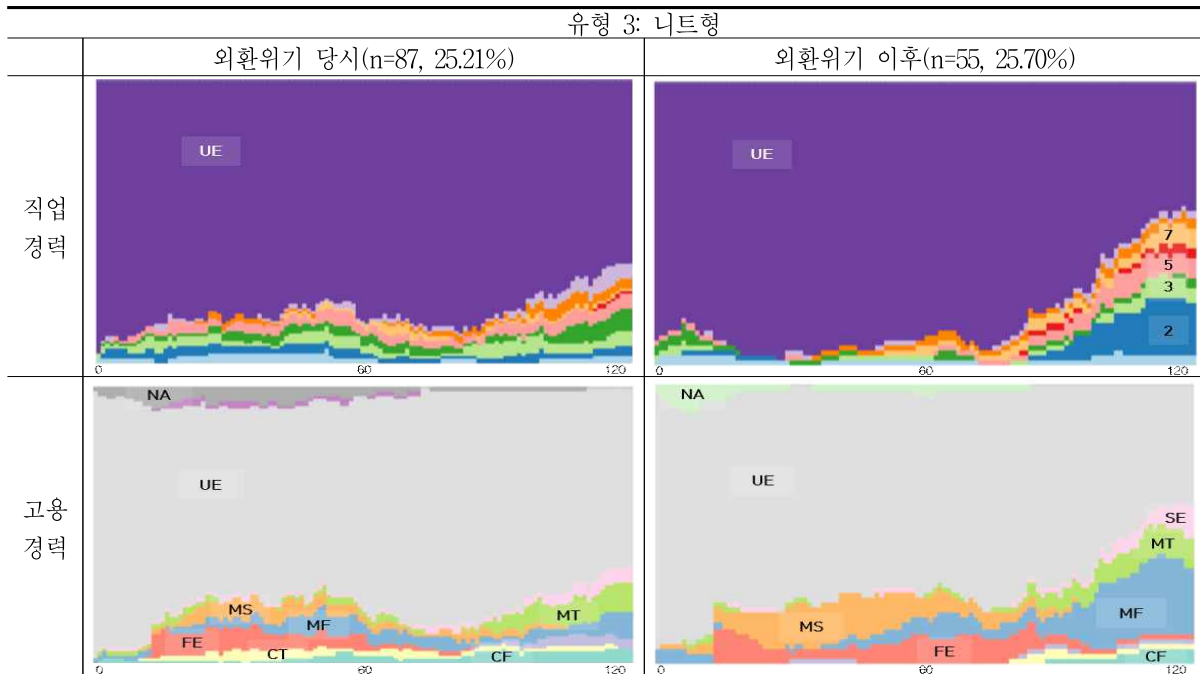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3) 유형 3: 니트형

유형 3: 니트형은 직업 및 고용경력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UE: 실업 및 구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세부적으로 직업 및 고용 상태의 뚜렷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UE: 실업 및 구직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며, 직업경력 측면에서는 2: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중심으로, 고용경력 측면에서는 MF: 중소기업-정규직 중심으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3(니트형) 비교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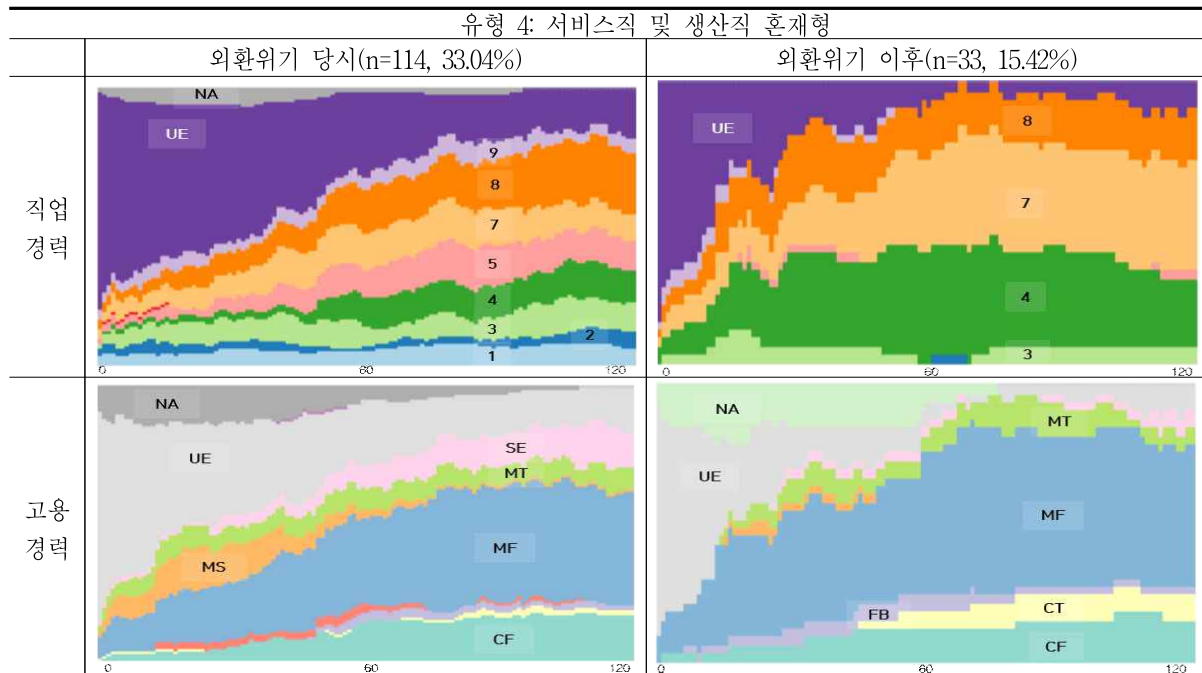
4)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직업경력 차원에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다양한 직업상태가 혼재되어 있는데, 외환위기 당시에는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와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외환위기 당시에 더 많은 직업상태가 각각 낮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4가지 경력 상태가 뚜렷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UE: 실업 및 구직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MF: 중소기업-정규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증가 비율은 CF: 대기업-정규직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규직 측면에서 외환위기 이후 CT: 대기업-비정규직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나 외환위기 당시에 CT: 대기업-비정규직의 비율은 극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T: 중소기업-비정규직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동시장으로 이행되는 당시 경력 초기부터 MT: 중소기업-비정규직이 존재하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초기의 특정 시점부터 MT: 중소기업-비정규직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4(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비교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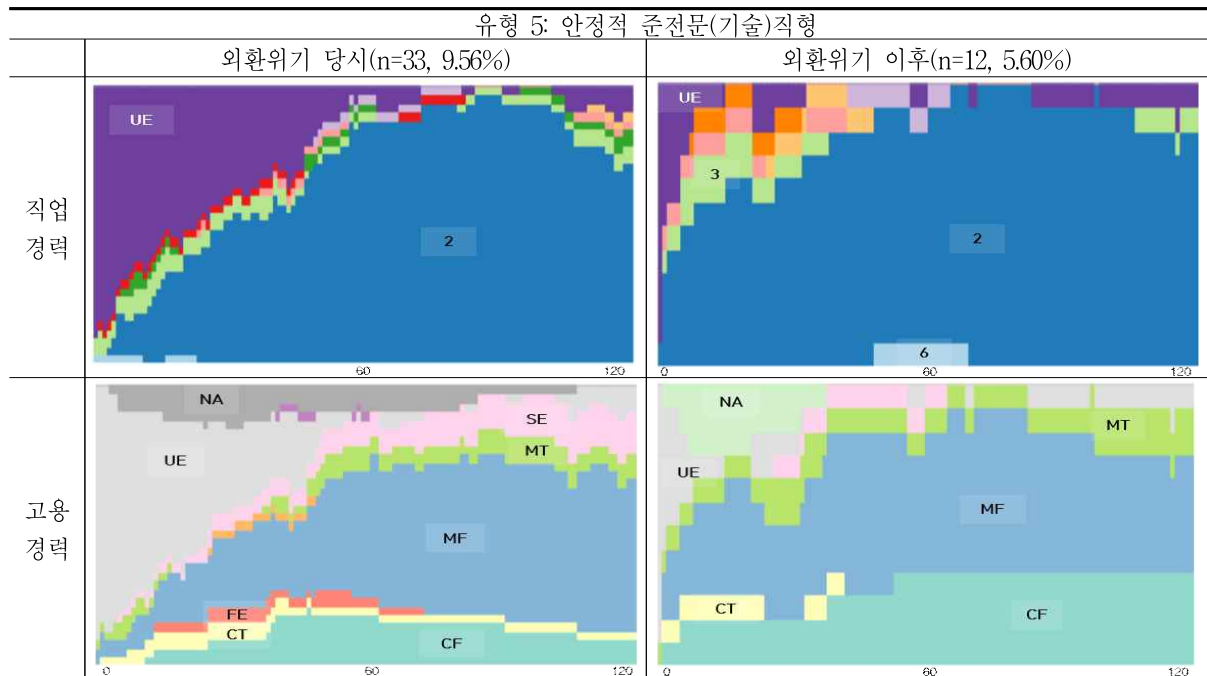
5)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은 직업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2: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입직하여 타 직업으로의 이동 없이 5: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일부 외환위기 당시 타 직종(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출현하나 그 비율이 낮고 일시적임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타 직종이 출현하나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직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에서 직업경력은 외환위

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이 2: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입직하여 직업의 변화 없이 2: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고용경력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초기 UE: 실업 및 구직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MF: 중소기업-정규직의 증가 비율은 유사한데 반해, CF: 대기업-정규직의 양상은 외환위기 당시 시간이 경과될수록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외환위기 이후는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당시 경력 초기 및 중반기에 FE: 후진학자가 집중적으로 등장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FE: 후진학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중반기부터 자영업자의 비율이 뚜렷이 나타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우 자영업이 나타나지만 경력 초기 및 중반기에만 단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5(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비교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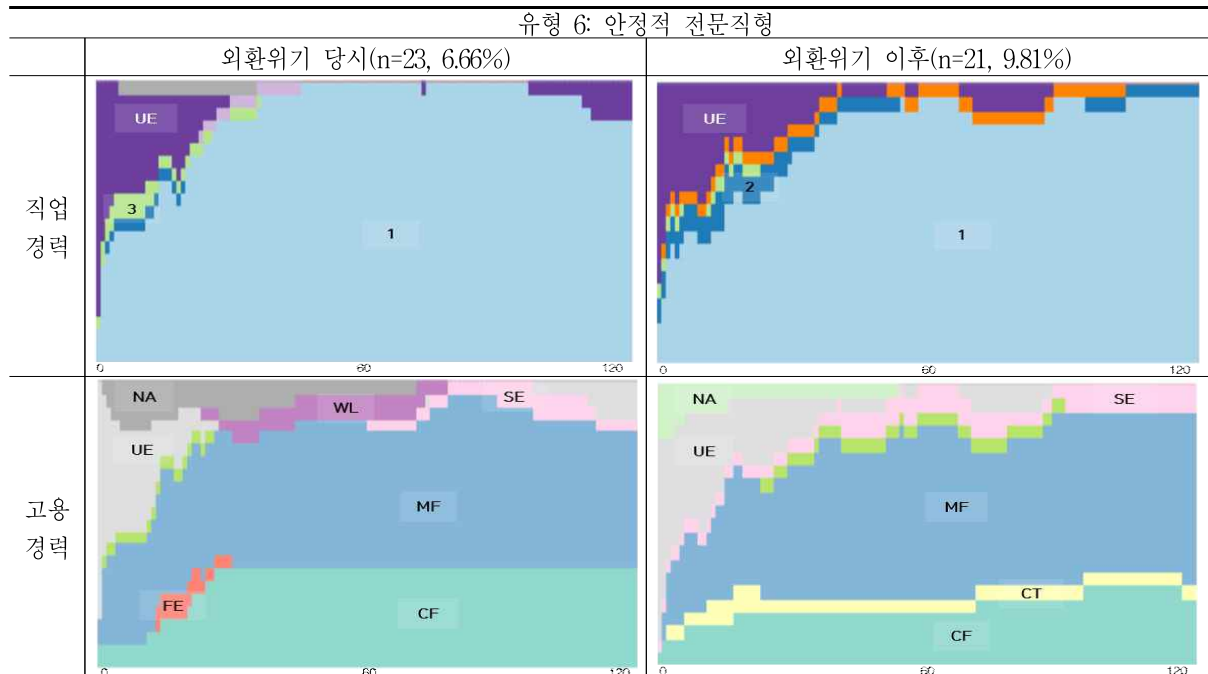
6)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은 직업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1: 전문가로 입직하여 타 직업으로의 이동 없이 1: 전문가의 경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일부 외환위기 당시 타 직종(3: 사무 종사자 등)이 출현하나 그 비율이 낮고 일시적임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

후에도 타 직종(2: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이 출현하나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직종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에서 직업경력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이 1: 전문가로 입직하여 직업의 변화 없이 1: 전문가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력 차원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고용경력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MF: 중소기업-정규직의 비율이 유사하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CF: 대기업-정규직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경력 초반에는 비율이 낮았으나, 이후 그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CF: 대기업-정규직의 경우 그 증가율이 뚜렷하지 않으며 유지하는 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환위기 당시 CF: 대기업-정규직의 증가는 FE: 후진학자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동시에 WL: 일/학습도 증가하면서 1: 전문가의 경력의 경우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경력 상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FE: 후진학자, WL: 일/학습에 대한 경력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외환위기 당시 CT: 대기업-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무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CT: 대기업-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지만 경력 전반에 걸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6(안정적 전문직형) 비교



주1) 직업경력: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주2) 고용경력: CF: 대기업-정규직, CT: 대기업-비정규직, MF: 중소기업-정규직, MT: 중소기업-비정규직, FE: 후진학자, MS: 병역이행자, SE: 고용주/자영업자, WL: 일/학습, FB: 가족사업종사자, UE: 실업 및 구직, NA: 미상.

2.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을 유형화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은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으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인구통계학적, 진입, 과정 및 결과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6> 참조).

가.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성별,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 최종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외환위기 당시 남성의 경우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성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 시 외환위기 당시 고졸이하의 경우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 진입유예형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경우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학력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고졸이하의 경우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의 경우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최종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성별,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 최종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경우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유형 3: 니트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 당시 외환위기 이후 고졸이하의 경우 유형 3: 니트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학력에 있어 외환위기 이후 고졸이하의 경우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의 경우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최종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이 성별,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 최종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성별,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2: 진입유예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3: 니트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성별,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성별, 최종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5: 안정적

첫 일자리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3: 니트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첫 일자리 임금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첫 일자리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첫 일자리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첫 일자리 임금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과정 특성

1)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과정 특성 차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일자리 유지 기간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는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직 횟수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는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이직 횟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과정 특성 차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일자리 유지 기간에 있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는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일자리 유지 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직 횟수에 있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는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이직 횟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과정 특성 차이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이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2: 진입유예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직 횟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3: 니트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이직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과 결과 특성

1)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 특성 차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 유예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순으로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근속년수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근속년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임금에 있어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결과 특성 차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취업여부, 근속년수,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 있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3: 니트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순으로 미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의 미취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근속년수에 있어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근속년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임금에 있어 외

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는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 직형,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2: 진입 유예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로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는 미취업자 수 사례 부족으로 통계적 검정이 불가하였으며, 근속년수,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2: 진입유예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3: 니트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근속년수,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 임금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속년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는 미취업자 수 사례 부족으로 통계적 검정이 불가하였으며, 근속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취업여부는 미취업자 수 사례 부족으로 통계적 검정이 불가하였으며, 근속년수, 임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6> 청년층의 경력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종합

구분		1: 안정적 사무직형		2: 진입유예형		3: 니트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6: 안정적 전문직형		코호트 내 유형 간 (y ² 통계량)		유형별 코호트 간 (t통계량)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 이후	1	2	3	4	5	6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	남성	24(11.9)	23(15.2)	19(9.6)	41(27.2)	45(22.4)	35(23.2)	80(39.8)	25(16.6)	24(11.9)	9(6.0)	9(4.5)	18(11.9)	18.0*	4.5	3.2	3.1	1.9	0.3	-	100*
		여성	28(19.4)	12(19.0)	17(11.8)	17(27.0)	42(29.2)	20(31.7)	34(23.6)	8(12.7)	9(6.3)	3(4.8)	14(9.7)	3(4.8)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적 특성	고졸이하	15(8.0)	3(4.1)	34(18.1)	24(32.9)	53(28.2)	30(41.1)	68(36.2)	11(15.1)	16(8.5)	4(5.5)	2(1.1)	1(1.4)	73.0*	47.1*	5.5	27.0*	0.8	7.1*	-	-
		전문대졸	15(23.8)	11(18.0)	0(0.0)	20(32.8)	14(22.2)	12(19.7)	26(41.3)	13(21.3)	3(4.8)	2(3.3)	5(7.9)	3(4.9)								
		대졸이상	22(23.4)	21(26.3)	2(2.1)	14(17.5)	20(21.3)	13(16.3)	20(21.3)	9(11.3)	14(14.9)	6(7.5)	16(17.0)	17(21.3)								
	최종 학적 특성	고졸이하	7(6.0)	3(4.8)	0(0.0)	22(35.5)	40(34.2)	21(33.9)	58(49.6)	11(17.7)	12(10.3)	4(6.5)	0(0.0)	1(1.6)	87.6*	35.5*	1.2	33.6*	1.0	3.2	-	-
전문대졸		20(21.5)	11(16.4)	6(6.5)	22(32.8)	20(21.5)	16(23.9)	35(37.6)	13(19.4)	7(7.5)	2(3.0)	5(5.4)	3(4.5)									
대졸이상		25(18.5)	21(24.7)	30(22.2)	14(16.5)	27(20.0)	16(21.2)	21(15.6)	9(10.6)	14(10.4)	6(7.1)	18(13.3)	17(20.0)									
진입 특성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13.11	9.54	64.86	40.12	72.88	80.41	26.55	12.78	21.30	4.91	8.65	11.1	41.7*	50.6*	1.3	16.2*	0.9	7.9*	7.9*	0.5	
	첫 일자리 임금	163.69	204.03	131.65	134.10	132.75	161.09	135.71	138.80	130.06	174.29	198.69	177.47	2.3*	4.4*	3.7	0.1	3.2	0.1	1.8	0.3	
과정 특성	첫 일자리 유지 기간	63.42	74.85	18.96	36.87	18.78	17.50	42.76	43.33	46.42	67.33	71.39	53.95	18.3*	13.0*	1.4	11.2*	0.2	0.1	2.7	1.6	
	이직 횟수	1.00	0.94	1.06	1.24	0.95	1.00	1.46	1.48	1.27	1.41	1.08	1.23	1.5	0.85	0.1	0.4	0.1	0.1	0.1	0.1	
결과 특성	취업 여부	미취업자	2(2.1)	2(5.6)	12(12.5)	5(13.9)	56(58.3)	25(69.4)	20(20.8)	3(8.3)	3(3.1)	1(2.8)	3(3.1)	0(0.0)	87.5*	44.3*	-	9.1*	4.9*	1.3	-	-
		취업자	50(20.1)	33(18.5)	24(9.6)	53(29.8)	31(12.4)	30(16.9)	94(37.8)	30(16.9)	30(12.0)	11(6.2)	20(8.0)	21(11.8)								
	근속년수	102.71	107.51	35.58	66.15	21.34	20.07	78.98	97.81	91.03	110.08	109.00	106.00	156.1*	212.7*	2.2	5.3*	0.1	17.3*	10.3*	0.6	
	임금	200.93	224.78	202.65	175.58	218.79	186.23	219.86	185.61	225.09	241.98	269.58	245.00	0.8	4.0	1.3	1.7	0.5	1.5	0.2	0.5	

주1) 괄호 안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각 코호트에 대한 변인의 경력 유형 분포를 기준으로 함

주2) ① 성별, 노동시장 진입 당시 학력, 최종 학력, 취업여부: 명(%). ②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첫 일자리 유지 기간: 개월. ③ 첫 일자리 임금, 임금: 만원. ④ 이직 횟수: 회.

V. 논의 및 결론

1.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 관한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력은 유형 1: 안정적 사무직형, 유형 2: 진입유예형, 유형 3: 니트형, 유형 4: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유형 5: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유형 6: 안정적 전문직형으로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의 경력은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나 유형의 비율적 측면에서, 유형 내 직업 및 고용 상태 측면에서 상이하여 추가적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경제위기 시 청년층을 위한 노동시장은 서비스직 및 생산직을 중심으로 개설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외환위기 당시 전체 청년층의 경력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33.04%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의 주된 경력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당시 진입유예형과 니트형을 제외하면 노동시장에 입직한 청년층의 51.35%가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경제 위기가 도래할 때 절반 이상의 청년층이 대부분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사무 등 비전문직 직종에 종사하게 되며 다양한 고용형태가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진입유예형, 니트형을 제외했을 때 전체의 32.6%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 위기 시 청년층의 입직을 위한 고용시장이 서비스직 및 생산직을 중심으로 개설되며 사무직, 준전문(기술)직, 전문직형의 고용은 동결되거나 제한되는 구조적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경제상황에 따른 초기 노동시장 입직 지연 및 실패 시 청년층의 경력 선택지에 차이가 발생한다.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입유예형에 속한 청년층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후진학으로 경력을 개발해나가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후진학 보다 여타의 직업 및 고용 활동 없이 입직을 계속 지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후진학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진입유예형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분별된다. 노동시장 입직 지연 및 실패를 경험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은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상위 정규교육기관으로 진학자가 현저히 낮으며, 오히려 입직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중국에는 입직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실업은 존재하나,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상위 정규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청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실업이 장기화되더라도 후진학 보다 지속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니트 성격의 입직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층은 비전문직, 중소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고, 후진학형 성격의 입직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중 입직에 있어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를 겪는 진입유예 입직형이 존재한다. 이때의 실업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 기간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입직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진입유예 이

후 입직의 결과를 직업 및 고용경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처럼 진입유예 시 니트 성격의 입직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 직업경력 측면에서 진입유예 이후 청년층은 다양한 직종에 분포하게 되는데, 주로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직종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제외하고 다소 비전문적 직종에 산발적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무직은 중심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Fassmann & Meusburger, 1997), 사무직으로의 입직 역시 중심부의 좋은 일자리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용경력 측면에서는 진입유예 이후 입직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이 대기업 중심의 전문직으로 판단되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 연구의 결과 니트 성격의 진입유예는 청년층의 경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입직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전문직이며 동시에 중소기업 중심의 입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의 미취업 상태는 청년층에게 오점효과를 주게 되어 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한다고 볼 수 있고(Ellwood, 1982; Corcoran, 1982),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 또는 낮은 질의 일자리를 취득한다는 선행연구(안주엽, 홍서연, 2002)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경제위기 시 서비스직 및 생산직, 준전문(기술)직에서는 입직자의 자영업 전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영업 전환은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 중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과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보고(이태정, 2014)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력 유형은 상이한 특성의 경력으로서,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은 특정 준전문 분야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전개하는 유형이며,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다양한 직종 분야를 활발히 이동하며 상대적으로 이동이 잦은 고용을 전개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경력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자영업자의 전환 비율이 높은 현상은 자영업자 진출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자의 등장은 첫 번째로, 자영업의 매력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와 두 번째로,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다른 선택 여지가 없는 ‘할 수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뛰어든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홍두승, 2010).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 따라 어떠한 사유로 자영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으나,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유의미하게 늘어나며, 준전문(기술)직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터하여 보다 나은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 자영업으로 전환하며, 비전문직인 경우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차별로 인해 자영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직 및 생산직인 경우 직업 및 고용 간 변동이 활발한 비누적적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중 특정 직종이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력 유형은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으로 구분되고, 다양한 직종의 혼합 형태인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의 직업경

력과 고용경력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의 직업 및 고용경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폐쇄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의 경우 직종 간의 경계가 폐쇄형이기 보다 무경계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서비스, 판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간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적 측면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성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년층의 활발한 경력변동을 경력개발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경력침체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의 경력변동을 해석하는 것은 청년층이 진입한 직종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전문직, 준전문(기술)직, 사무직인 경우 입직 직종에서 안정적인 고용상황에 따라 누적적 경력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서비스직 및 생산직에 입직하여 종사할 경우 경력의 과정적 측면에서 유사 또는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경력 변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 같은 경력 변동은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높은 중하급 직종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일수록 비누적적 경력개발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1995년 이후 기능조작 및 단순노무직인 생산직과 서비스, 판매직이 점차 유사한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유홍준, 김기현, 정태인, 2013). 이와 같이 이질적 직무와 직종 간 경계가 느슨해지는 현상은 저직능 직종인 경우 임금, 고용상태, 업무환경의 부정적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청년층의 경력 중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니트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공통적으로 유사한 비율의 니트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재량(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구직 니트족은 구직 니트족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적으며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구직 니트는 년 만명으로 구직니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에 2.5만명 감소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비구직 니트는 지속적이며 강한 증가추세를 가지고 있어, 2004년에 이르면 무려 80.6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2004년의 구직 니트 규모인 40.7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한다. 비구직 니트는 구직 니트와 달리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며 강한 상승추세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다.

2.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 및 결론

첫째, 경제위기 시 여성의 경력은 남성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휴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 외환위기 당시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성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은 성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외환위기 당시 여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력 유형은 니트형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에 분포되어 있어 여성에 비해 유휴인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락하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진로나 경력개발에 관한 지도와 관심이 부재하며,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각종 고용 차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홍, 김종숙, 2002; 이정표, 2004). 따라서 경제위기 도래 시 성별에 따라 청년층의 경력이상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 시 학력 측면에서 대졸자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에는 사무직 또는 전문직으로의 경력을 시작하나, 경제위기 당시에는 일부 사무직형으로 입직하기도 하지만, 서비스직, 생산직으로도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족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졸자의 경우 경제위기 시 하향취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졸자의 하향 취업은 고학력자의 증가와 고학력자의 공급에 부응하는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교육수준, 적성과 관련없이 취업을 먼저 시도하게 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진선미, 공정석, 2011).

셋째, 고졸이하의 경우 경제위기 시 진입유예를 시도하며 동시에 상위정규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이하의 청년층에 개설되는 노동시장의 빈약성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신호기제가 고졸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진입유예형에 속한 청년층의 학력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과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위기 이후 진입유예형은 특정 학력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진입 특성에 관한 논의 및 결론

첫째, 이 연구의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경력 유형의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니트형과 진입유예형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입직한 경력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 간의 입직 기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당시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 간의 취업 소요 기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서비스직 및 생산직 혼재형은 더 오랜 입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 시 입직자들 간의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안정적 사무직형, 안정적 준전문(기술)직형, 안정적 전문직형에 비해 서비스직 및 생산직으로의 취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임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학력 간, 직종 간, 조직 규모 간, 근로계약 간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시 청년층의 임금이 저임금으로 동결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임금의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과정 특성에 관한 논의 및 결론

청년층의 잦은 이직은 경제상황과 무관한 청년층의 고유 특성으로 판단된다. 흥미롭게도 청년층

의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경제가 안정되었을 때 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청년층의 10년 간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이직은 경제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청년층의 이직 성향은 보다 잦으며, 경제가 안정될수록 청년층은 보다 안정적인 경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이직은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지속적인 경력개발 과정이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즉 청년층은 노동시장의 입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종 및 조직을 이동해가며 안정적인 경력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청년층의 잦은 이직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이는 초기경력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무관한 고유한 현상이라 판단할 수 있다.

5. 청년층의 경력 유형별 결과 특성에 관한 논의 및 결론

첫째, 청년층의 경력 유형에 따라 근속년수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상호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청년층의 근속년수 차이는 경력 유형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니트형과 진입유예형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입직한 경력 유형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질 좋은 일자리로 대변될 수 있는 전문직, 준전문(기술)직, 사무직의 경우 오랜 경력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각 유형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전문직의 경우 타 유형과의 근속년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비전문직 혼재형의 경우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해 근속년수가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의 실업 또는 미취업으로 인한 유희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미취업기간 중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및 노동시장에서의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 결여로 인한 평생 소득이 감소, 근로소득의 감소, 낮은 생산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안주엽, 홍서연, 2002). 때문에 입직유예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비전문직 혼재형의 경우 결과적으로 경력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경제위기 시 입직한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임금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첫째는, 입직 시 발생하는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의 임금의 차이는 존재했으나,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임금의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초기 입직 시 어떠한 임금형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정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저임금근로로 입직할 시 저임금근로를 탈출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현상은 상당부분 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위기 시 전반적으로 낮은 고용의 질과 임금으로 인해 청년층의 경력 유형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저임금 지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 시 입직한 청년층의 10년 경과 후 경력 유형 내 임금 편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시 입직한 청년층의 경력 유형 중 니트형의 임금 표준편차는 약 214만원, 서비스 및

생산직 혼재형에서의 임금 표준편차는 146.844만원, 안정적 전문직형의 표준편차는 약 139만원으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니트형, 서비스 및 생산직 혼재형의 경우 임금의 큰 편차는 경력 유형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 전문직형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위기 시 높은 자영업자 전환율, 외환위기로 인한 생존적 경력개발을 통한 결과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규동, 어수봉. (2010).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과 임금효과」. 『경영연구』, 25(2), 135-161.
- 김기희. (2006).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 증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대일. (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대일. (2007).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학연구』, 55(4), 473-502.
- 김명심. (2003). 「성별에 따른 청년층의 학교-직업 이행의 차이-교육수준과 취업경로를 중심으로-」. 『고향논집』, 33, 111-132.
- 김명언. (2007). 「새로운 안정성 발판의 구축: 긍정성 중심의 변화」. 정운찬, 조홍식(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pp 377-404.
- 김영미, 한준. (2008).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1982-2004」.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 55-66.
- 김유선. (2009).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산업관계연구』, 19(2), 1-25.
-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김주영, 조동훈, 이번송, 조준모, 이인재. (2009). 『한국의 임금격차』.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홍, 김종숙. (2002).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 형태 연구」. 『한국인구학』, 25(2), 41-68.
- 류기락. (2009).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한국사회학』, 43(4), 37-76.
- 민태욱. (2007). 「화폐의 시간가치와 조세법」. 『조세법연구』, 13(2), 527-559.
- 박재민, 김영규, 전재식. (2011).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성과에 미치는 성과」. 『노동정책연구』, 11(4), 29-53.
-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유홍준, 김기현, 정태인. (2013). 「한국의 직업구조: 직업군별 인구집단의 변화추이」. 『한국인구학』, 36(1), 101-123.
- 은수미. (2009). 「경제위기와 여성고용」. 『페미니즘연구』, 9(1), 143-158.
- 이정표. (2004). 「여성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실태 분석」. 『고용직업능력연구』, 7(1), 117-140.
- 이창훈. (2007). 「한국사회 임시직의 분화와 이질성」. 『한국사회학』, 41(1), 94-123.
- 이태정. (2014). 「경기변동과정에서의 자영업자의 역할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강원도의 사례」. 『지역연구』, 30(1), 81-108.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상수. (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장창원, 나현미, 김상호, 김승연. (2002).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혜현. (2010). 『기업규모별 고용 균열과 비정규직 문제: 한국 노동시장 분절의 특징 및 비정규 노동자 복지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전병유, 이상일. (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전용석, 김준영. (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_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동향분석』, 3(4), 233-245.
- 정성미. (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월간노동리뷰』, 4월호, 32-41.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이환. (2002). 「노동시장 불평등과 조직 내 불평등: 1990년대 임금 불평등 추세 연구」. 『한국사회학』, 36(6), 1-25.
- 정이환. (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2007: 직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 209-240.
- 진선미, 공정석. (2011). 「대졸자의 하향취업이 노동시장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3(1), 95-120.
- 최용환, 황상연, 김을식. (2011). 『대학진학률 80%의 허와 실』. 경기개발연구원.
- 최윤선, 이호섭. (2014). 「대학 졸업 취업자의 첫 일자리 유지 영향 요인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331-346.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4). 화폐가치계산 Retrieved from <http://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sp>
- 허식. (2003). 「산업과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원인분석」. 『응용경제』, 5(3), 57-74.
- 홍두승. (2010).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서울: 동아시아.
- Becker, G. S. (1993). *Human capital* (3rd. Edition),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Ehrenberg, R. G., & Smith, R. S. (2002).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 Gauthier, J. E., Widmer, E. D., Bucher, P., & Notredame, C. (2010). "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 applied to social science data." *Sociological Methodology*, 40, 1-38.
- Goodman, L. A., & Kruskal, W. H. (1972). "Measures of association for cross classifications, IV: simplification of asymptotic varia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7(338), 415-421.
- Hermann, C. F. (1963). "Some consequences of crisis which limit the variabilit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8, 61-82.
- Jacobson, L. S., & LaLonde, R. J. (1993). "Earnings losses of displaced workers." *American Economic Review*, 83(4), 685-709.
- Verick, S. (2009). *Who is hit hardest during a financial crisis?: The vulnerability of young men and women to unemployment in an economic downturn*